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31.(목) 11:00 < 9.1.(금) 조간 > 배포 2023. 8. 31.(목)

민관이 함께 「바이오 경제」 이행 본격화

-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 참여 민관 합동『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1차 회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8. 31.(목)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바이오 경제 라이언스'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바이오 경제 :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메커니즘)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의 이행을 위해 산업부와 관련 협단체, 학회, 지원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 **(협단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대한석유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바이오경제학회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분과 ▲바이오 신소재/에너지 분과 ▲디지털 바이오 분과 ▲바이오 정책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여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총리) 등에 제안·건의하여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바이오 경제를 확장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경제 2.0 정책 방향」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3-4290)
		담당자	서기관	윤영범 (044-203-42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